



## 가정

#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 설교

안녕하세요, 친구들!

오늘은 특별한 도시락 이야기를 들려줄게요. 어느 날, 예수님께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무려 5천 명이나 되었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해 주시고,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배가 고파졌어요. 제자들은 걱정했어요.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어요?”

그때 한 어린아이가 도시락을 가지고 왔어요. 그 안에는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었어요. 정말 작은 양이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받으시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셨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떡과 물고기가 계속 생겨나서 모든 사람이 배불리 먹었어요. 그리고 남은 조각을 모으니 열두 바구니나 되었대요!

친구들, 예수님은 작은 도시락으로 큰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드리는 작은 마음도 귀하게 받으세요. “이건 너무 작아서 아무 쓸모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께 드리면 작은 것도 큰 일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시간, 우리의 기도, 우리의 사랑,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 드리면 놀라운 축복으로 변해요. 오늘 하루, 우리도 그 어린아 이처럼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께 드려요.

“예수님, 제 마음을 드려요! 제 사랑도 드릴래요!”

충일교회 가정예배부

